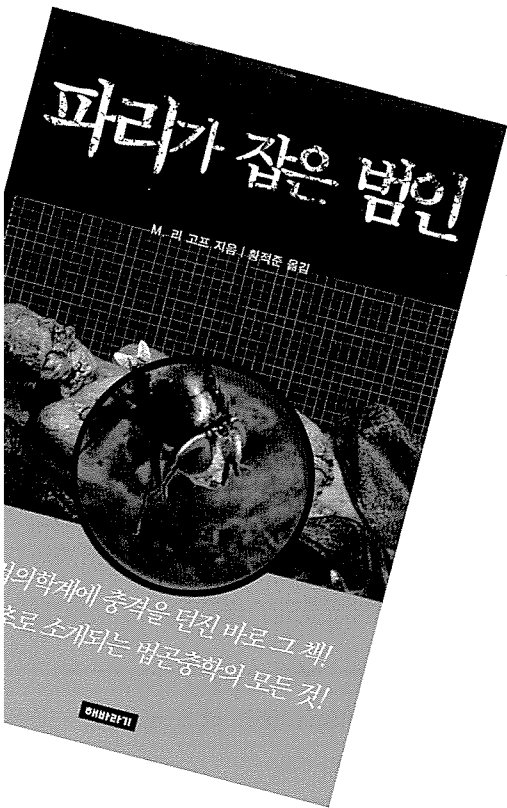


과학으로 무장한 정의 앞에 범죄란 없다

곤충학자 리 고프의 『파리가 잡은 범인』



리 고프 지음 | 황적준 옮김
해바라기 | 2002년

우리 인간이 짐승과 명백하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분명 감정과 언어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기억력과 사고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심지어 도구를 사용하고, 배탈이 나면 천연 약용 식물을 찾아내어 먹을 줄 아는 짐승도 있는 것을 보면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도구와 기술도 인간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다. 동료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집단적인 보복을 감행하는 정의감에 넘치는 유인원도 있다. 그렇지만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동료의 원혼을 달래주는 짐승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법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과학 응용의 한 분야인 셈이다.

서양에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검시관이나 법의관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많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간을 밝혀내 시치미를 떼고 있는 범인을 찾아내는 영화 속의 검시관의 활약은 다른 어떤 탐정 영화보다 흥미롭다. 물론 과거의 주술사들도 신(神)의 도움이나 자신의 초능력으로 범인을 색출해서 사회 정의를 지켜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주술사라 하더라도 현대 과학으로 무장한 오늘날의 검시관을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범죄 현장서 채집한 곤충이 범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생명이 끊어진 시신에 달려드는 온갖 곤충의 종류와 상태를 근거로 사망 시간을 밝혀내는 '법곤충학'은 불과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새로운 과학 분야다. 진드기와 곤충의 생태를 연구함으로써 인간과 동식물에 미치는 피해를 연구하던 하와이의 곤충학자 리 고프가 "농부들에게 거미진드기의 퇴치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흥미로울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법곤충학자로 변신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파리가 잡은 범인』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흥미로운 '소설' 과도 같다. 숲이나 해변에 버려지거나, 허겁지겁 묻혀버린 시신에서 시작되는 고프의 사건들은 구겨진 바바리 코트와 헝클어진 헤어스타일로 살인 현장에 등장하는 강력계 형사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다만 이 '소설'의 주인공 탐정 리 고프가 찾아 헤메는 것은 범인이 흘린 머리카락이나 담배꽂초가 아니라, 개미와 말벌, 파리와 이를 비롯한 온갖 곤충들과 구더기들이다. 그리고 탐



정리 고프가 꿰어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온갖 잔피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는 용의자의 어설피게 가장 된 행동과 거짓말이 아니라, 먹고 먹히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미물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사건의 기록이다. 죽은 사람의 씹어 가는 육신을 먹고사는 곤충들의 짧은 일대기들이 겹쳐져 만들어지는 자연의 사건 기록이 잔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곤충들의 생태에 대한 과학적 지식으로 범인의 실체가 밝혀지는 클라이맥스 부분은 다른 탐정 소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 사회에서 거짓과 범죄는 결국 과학으로 무장한 정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는 없다.

복잡한 사회 지키는 현대과학의 저력 보여줘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의 육신도 죽음을 맞아 영혼이 떠나고 나면 한낱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 죽음의 순간부터 내장에 살고 있던 미생물은 물론이고, 파리와 개미를 비롯한 온갖 곤충들의 먹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인간의 번성으로 하이어나와 같은 육식성 동물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날 그런 시신을 먹이로 삼는 생물의 85%가 곤충이라는 사실에는 어쩐지 거부감이 느껴지지만, 어찌겠는가? 그것이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허망한 운명인 것을, 미물에 불과한 곤충들마저도 마약과 약물에 절어서 살던 사람들의 시신은 외면해버린다는 이야기에 이르면 자연의 냉정한 섭리에 가슴이 서늘해진다.

시신의 부패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죽은 돼지를 숲과 해변가에 놓아두고 관찰하고, 수 천 마리의 구더기를 관찰하고 해부하는 장면에서는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과학자의 열정이 느껴진다. 역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빈대'도 아닌 '이'의 소화관에 들어있는 피의 성분을 분석하는 지경에 이르면 현대 과학의 한계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역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반드시 범인을 찾아낼 것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살인 사건

은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찍부터 법곤충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가 10년 만에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려운 몇 조각의 뼈로 부모의 품에 돌아온 개구리 소년들의 원혼과 사어버린 부모의 가슴을 달래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장식하는 처참한 살인 사건은 이제 형사들의 노력과 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용의자의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선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 수사'는 정책적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꿈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새까맣게 타버려 한 줌의 재로 변한 시신에서 희생자의 신원을 밝혀주어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것도 유전자 감식을 비롯한 첨단 법의학의 성과 덕분이다. 비록 조금 늦기는 했지만,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법의학과 법곤충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살인 사건이나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초동수사가 부족하다는 한탄만 반복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인권'은 구호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전문 지식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이 책이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법의학자 황적준 교수가 직접 번역을 맡아주었다는 것이다. 군사 독재에 저항하다가 힘없이 쓰러진 박종철 군의 역울한 죽음의 원인을 과감하게 밝혀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장본인답게 꼼꼼한 번역과 유려한 문체로써 독자를 낫선 '법곤충학'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이제 우리의 법의학계도 곤충에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 보다 선진화된 사회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비록 연구 대상이 화려하지 않아서 사회의 그늘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법곤충학을 포함하는 법의학도 복잡한현대 사회를 지탱해주는 현대 과학의 저력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글 | 이덕환 서강대 교수